

[Data Updated] 2026.09.25 기준

안양시 민관협치 토론회 사전조사 결과 대시보드

시민의 경험, 우려, 그리고 정책적 요구사항 요약 (91인 데이터 기반)

Q. 전체 명단 중 얼마나 응답했나요? (설문 참여 현황)



● 응답 있음 65.9% (60명)

● 응답 없음 34.1% (31명)

- 연락 불가 32.3%
- 재통화 필요 29.0%
- 참여 거절 22.6%
- 답변 없음 16.1%

해석: 이 데이터는 토론회 신청 명단 중 '적극적 참여자' 60명의 경향입니다. 미응답자를 무관심층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수치를 안양시 전체 여론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 참여자들의 AI 이해도와 이용 경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AI 이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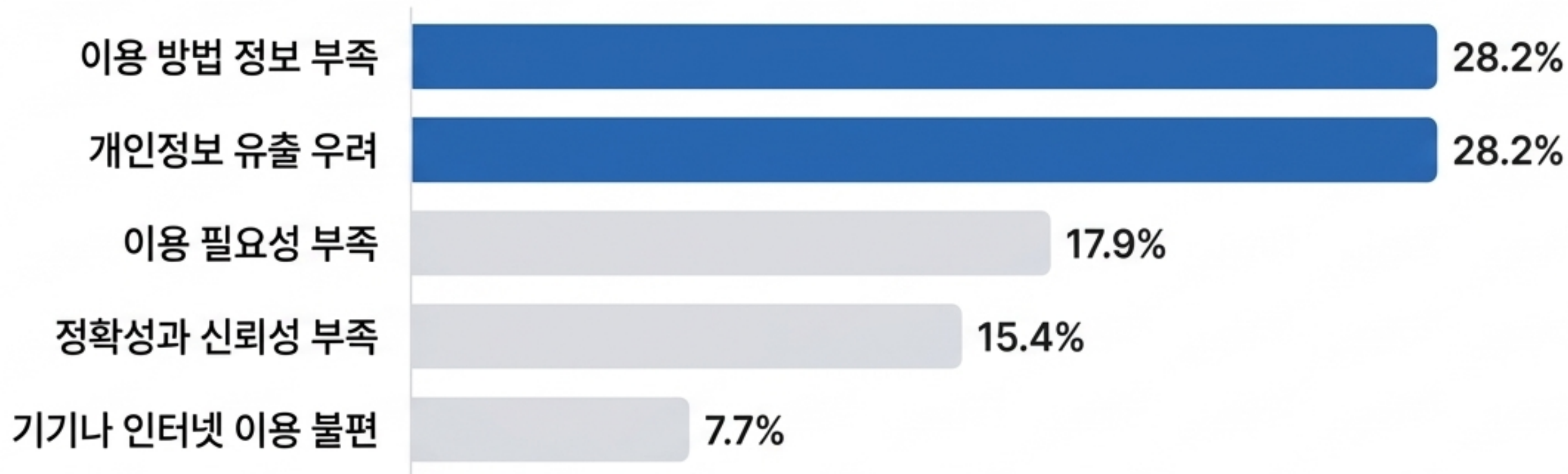


AI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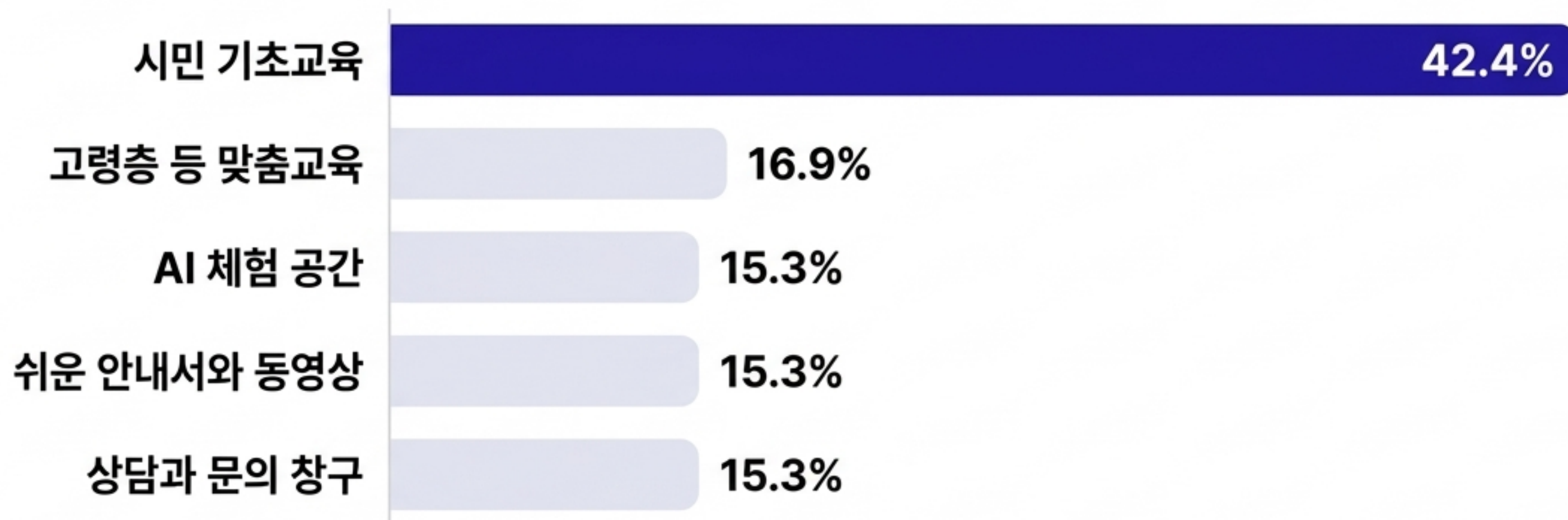
해석: 참여자의 85%가 AI를 자주 활용하는 '헤비 유저' 그룹입니다. 하지만 높은 활용 경험이 완벽한 기술적 이해나 정책 도입에 대한 맹목적 찬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AI 이용이 어렵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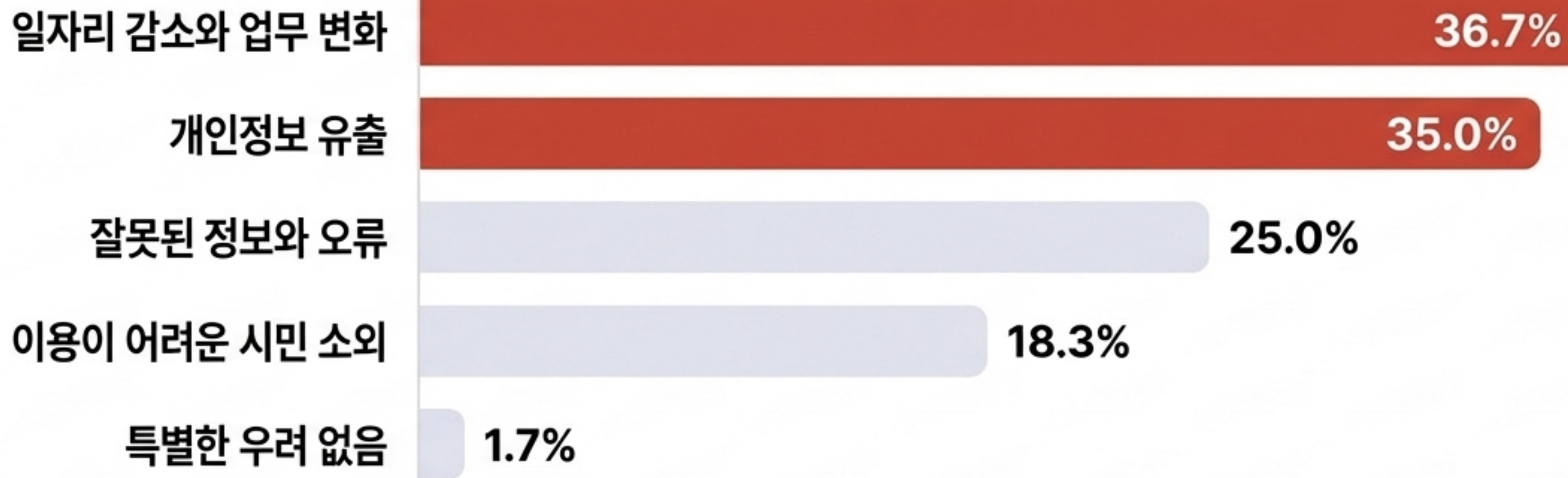
**해석: 정보 부족(How)과 프라이버시 불안(Risk)이 AI 활용을 막는 가장 큰 두 가지 장벽입니다.
사용법을 알리는 것만큼이나 안전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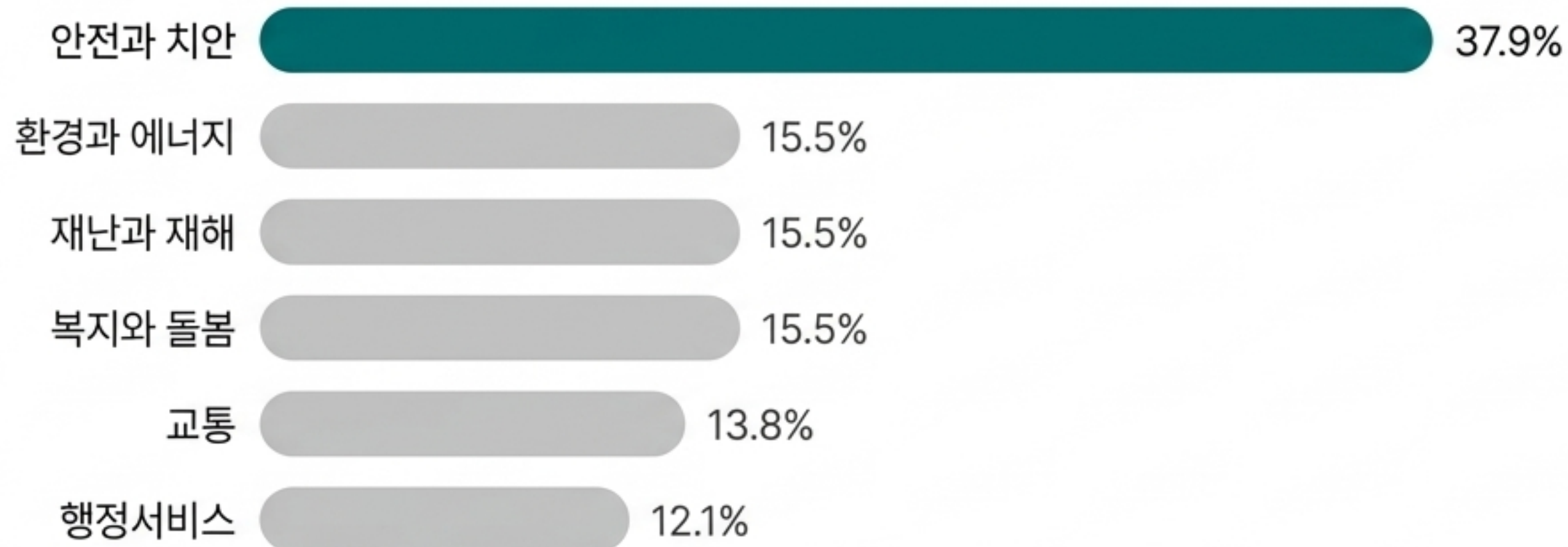
해석: '기초교육'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입니다.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앞서,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 설명자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Q. AI 확산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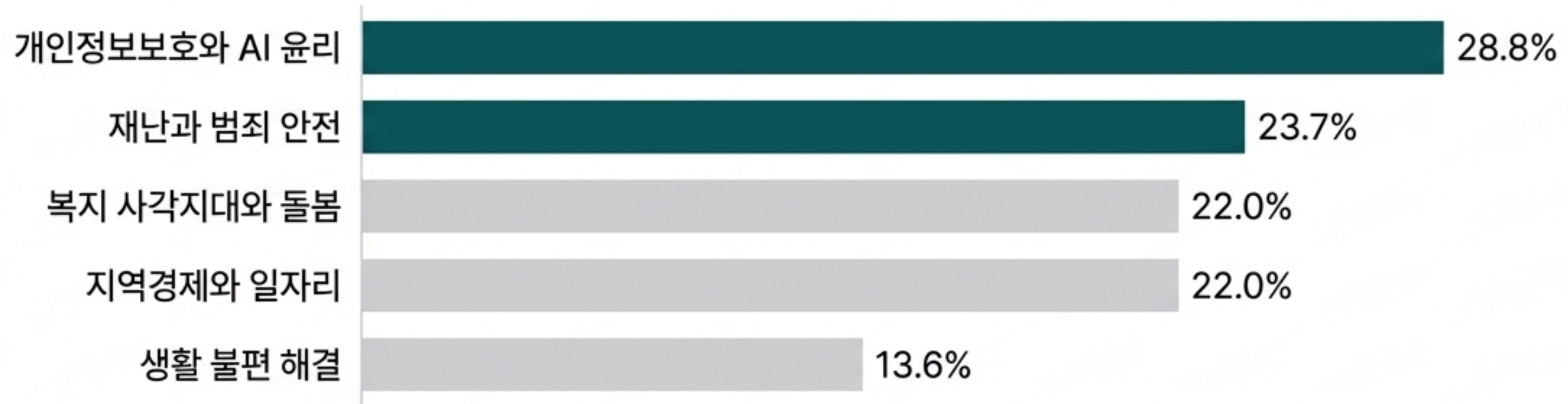
해석: 참여자 대부분이 AI를 잘 다루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데이터 유출 같은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습니다. 토론 시 이 우려를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Q. 안양시가 AI를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분야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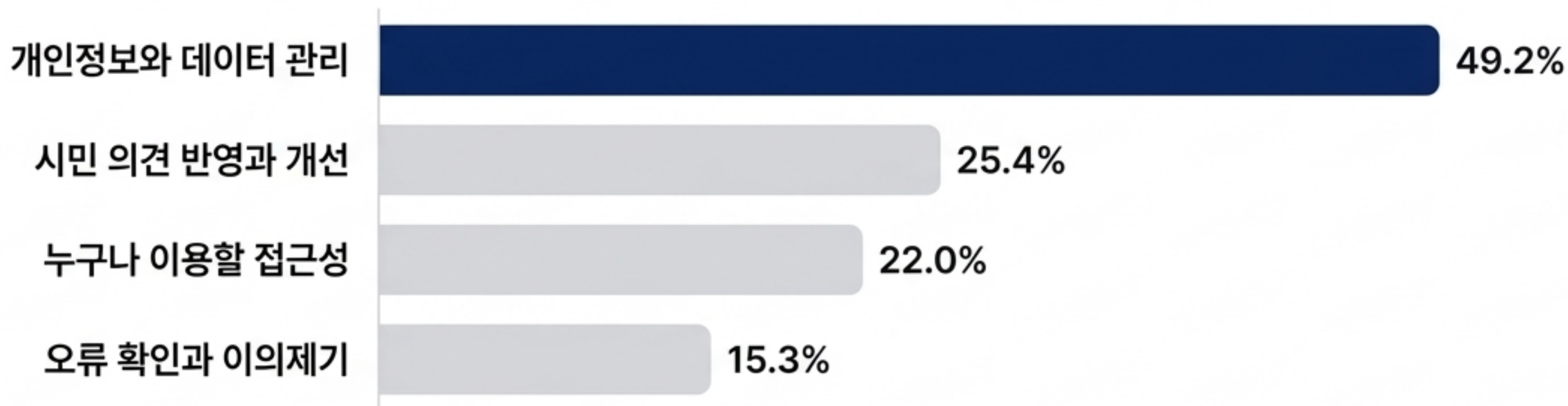
해석: 시민들은 단순한 '행정 편의성'보다 앞서, AI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 도구'로 우선 사용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Q. AI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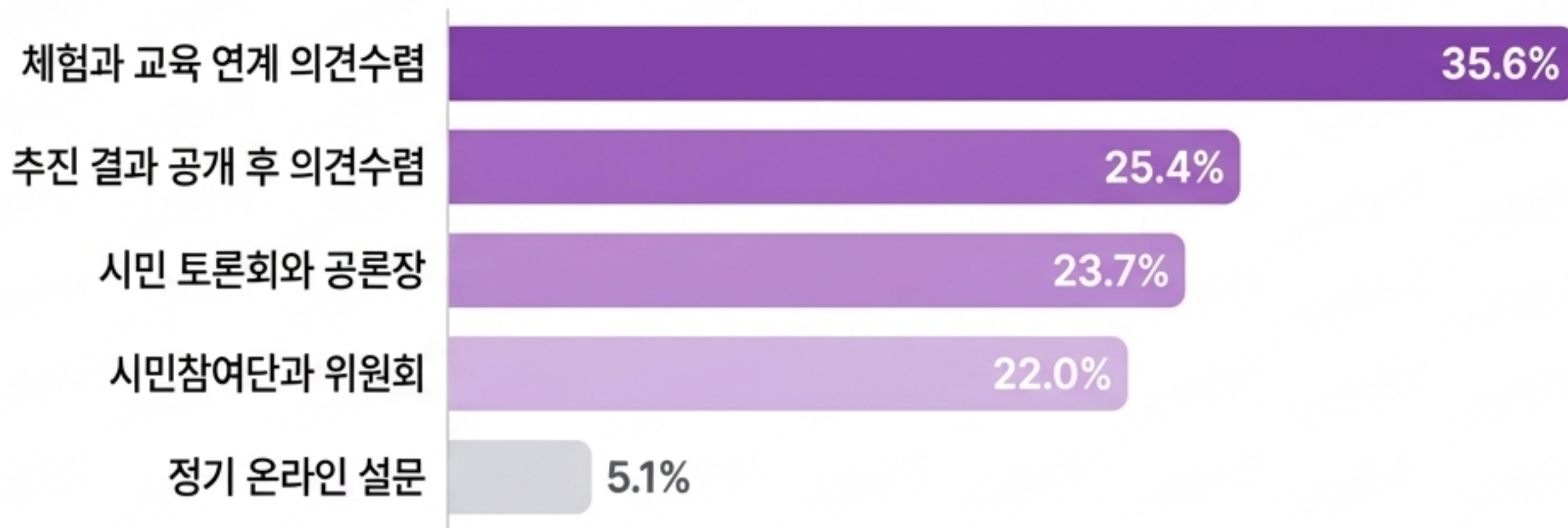
해석: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편의성 극대화'가 아닌 '윤리적 보호와 안전 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려 사항과 완벽히 거울처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Q. 시민이 안심하고 AI를 이용하기 위한 절대적 원칙은?



해석: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투명하고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AI 안심 이용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확신 없이는 서비스 확산이 어렵습니다.

Q. 향후 시민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이 좋습니까?



해석: 단순 온라인 설문(5.1%)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교육받은 뒤(35.6%) 결과를 보며(25.4%) 비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성숙한 숙의적 참여 의지를 보입니다.

Q. 주관식 자유의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 요구사항은?

- 행정 정보와 서비스 연계: 25.0%
- 안전/교통/환경: 21.2%
- 교육과 이해/홍보: 19.2%
- 접근성과 비용 부담: 19.2%
- 복지/돌봄/의료: 19.2%



해석: 자유 응답에서도 실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 간의 '통합 및 연계'와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추상적 기술이 아닌 실용적 효용성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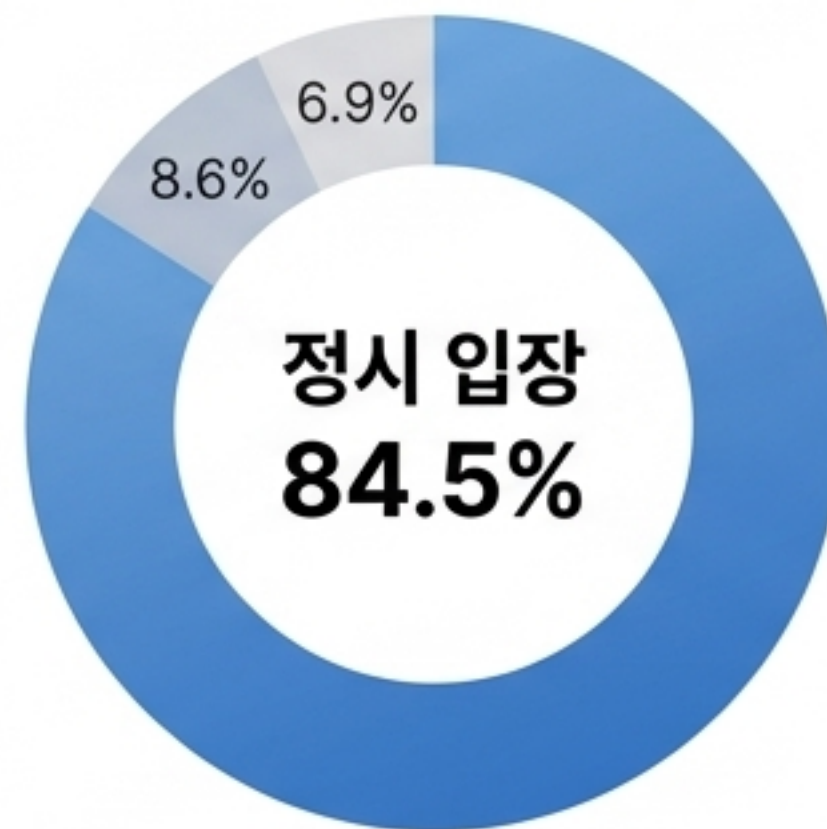
Q. 토론회에 대한 향후 참여 의향 및 당일 입장 스케줄은?

향후 참여 의향



적극 참여 49.2% / 기회 되면 참여 45.8%

당일 입장 스케줄



늦게 입장 8.6% / 기타 및 조기 퇴장 6.9%

해석: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약 10~15%의 지각 및 조기 퇴장 인원이 예상되므로, 현장 퍼실리테이터의 유연한 진행 대본과 운영 플랜이 필요합니다.

[운영 가이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테이블 배치 및 토론 설계 기준

배치 원칙	조사 근거 (데이터)	현장 운영 지침 (Action)
원칙 1: 경험의 균형	이용경험 4~5점 51명 vs 1~3점 9명	하위 그룹을 테이블별로 분산 배치하고, 발언 기회를 의도적으로 먼저 부여합니다.
원칙 2: 관점의 다양성	일자리·개인정보·오류 우려 혼재	특정 우려사항(예: 일자리 우려)을 가진 분들이 한 테이블에 편중되지 않도록 믹스합니다.
원칙 3: 미응답자 포용	미응답 31명 (전체의 34.1%)	미응답자를 '초보자'로 치환하지 않고 균등 분산시키며, 현장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원칙 4: 판단 조건 명확화	'기초교육 지원' 요구 42.4%	토론 시작 전, 공통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생활 사례 중심의 '쉬운 설명자료'를 필수 배포합니다.

[페르소나 요약] 데이터러를 통해 본 안양시 토론회 참석자의 3가지 특징



높은 경험, 엄격한 경계

AI를 이미 일상적으로 다루는 숙련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화려함에 속지 않으며, 내 직업과 개인정보가 침해받는 것은 단호히 경계합니다.



편의보다 안전 최우선

행정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재난과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먼저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로 AI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기 전의 학습 요구

단순히 찬반표를 던지는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정책의 작동 원리와 사례를 먼저 배우고, 그 위에서 이성적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결론: 참석자들은 기술에 압도되지 않은 주체적 시민들입니다.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홍보'가 아닌 투명한 '안전망과 한계 설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